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재즈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김중희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tane_kim@hanmail.net

Research on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creativity -Focused on jazz improvisation

Choonghoy Kim

*Dept.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Poplar Music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이 결합 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변화 시대에 음악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한다. 정보의 시대에서 창의성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창의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재즈 즉흥 연주와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즈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창의력을 지닌 사람 즉,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능력을 계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상으로 커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몫이다. 재즈 즉흥연주의 구조와 접근방식에 대해 이해하여, 향후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인재 역량 관련 발표 이후 가장 강조 되어지고 있는 창의성은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다. 현대의 지식은 남이 창출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을수 없다. 즉,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되며 창조되어 존재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보다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이 아닌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기업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적인 신규 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창의성은 현시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2.본론

음악 예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작과정에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으로 AI 기반의 아티스들과 저작물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음악인들도 영역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융합적이고 기술과 플랫폼을 만들어 1인 기업의 형태로 운영가능 할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도 AI와 음악 작곡을 접목시킨 사례가 이미 등장했다. 국내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인 '엔터 아츠'에서 선보인 스피카 김보영을 시작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작업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영감과 창의성은 인간이 갖는 고유성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 교육의 형태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이 아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거나 창의성을 높여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Amabile(1998)가 주장한 창의성을 끌어내는 환경적인요소들과 John Dewey의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경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창의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창의력을 증진을 위한 재즈 즉흥연주

재즈 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할 때 창의성은 극대화되는 반면에 창의성을 저해하는 뇌의 영역의 활성화는 최소화한다고 한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 찰스 립 교수는 재즈와 뇌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연주를 할 때 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했다. 립 연구팀은 재즈 피아니스트들이 fMRI 장치 안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영역을 스캔하여 즉흥연주를 수행할 때 연주자의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체크 하였다. 연구팀은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즉, 계획된 행동이나 자기검열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즉흥연주 시 활동성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반해 자기표현에 관련된 뇌의 영역인 내측전전두엽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의 활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연구팀에서도 최근 재즈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즉흥연주를 할 때 재즈 음악인들의 뇌의 편도체(amygdala)와 특정 신경망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에 편도체가 관여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재즈 즉흥 연주와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재즈 즉흥연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An Instructional Design for the Converged English-Science Teaching Method using PBL Model in Elementary School
In-Hwa Park(박인화)

[2] 실용음악분야의 교육과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제언-학회의 설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조승현

[3] 실용음악대학 현황과 교과목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소재 실용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서정환(Jeong-Hwan Seo)

[4] 인공지능 기법(CNN)을 이용한 음성과 음악구분
한상일(Sang-Il Han)

[5]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
김형천(Hyoeng Chun Kim)

[6]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융합교육이 초등학생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양다예,한선관

[7]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활용 음악 수업 지도방안
최홍실

[8] 인공지능과 음악 : 대한민국 1호 AI 뮤직 컨설턴트의 미래 음악 이야기 [전자책]
이지원 처음박스 처음네트웍스 2019